

광주 부동산중개소 올들어 206곳 폐업

경기 한파 직격탄...10월까지 주택매매 거래 작년비 23% 줄어

사무실 함께 쓰고 꽃집·마트 병행 살아남기 몸부림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김모(57) 씨는 밤에 대리운전을 한다. 지난해에만 해도 한달에 2~3건 했던 매매 계약이 올 들어서는 잘해야 1건에 그치고 있다. 최근 석달 동안은 단 1건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김씨는 “계약은 고사하고 문의조차 거의 없다”며 “먹고 살기 위해 밤에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부동산경기 불황에 공인중개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매매는 물론 전·월세 거래마저 줄면서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 올들어 광주에서만 200여 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하다.

부동산정보포털 온나라(www.onnara.go.kr)의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광주지역 주택 거래량은 3만13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6111건보다 22.7%(9225건) 감소했다.

이사철인 4월에도 3143건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 5052건과 비교하면 37.7% 줄어 들었다.

특히 공인중개사들의 주요 수입처인 아파트 매매 거래가 급감하면서 생활고를 가중시키고 있다. 올들어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만 76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 7195건보다 35.2% 감소했다.

이처럼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06곳이 문을 닫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가 19건, 서구 56건, 남구 28건, 북구 41건, 광산구 62건 등이다.

정규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산지회장은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경기의 민감하다”며 “올들어 매매 거래가 크게 줄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정 지회장은 “지난해 한 달에 6건 계약 정도로 잘 나갔던 공인중개사가

올해 들어서는 2~3건에 그치고 있다”며 “한 달에 한 건도 계약을 못하는 중개사들이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임대료와 사무실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2~3명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트나 꽃집, 담배가게 등 다른 업종을 병행하는 중개사들도 나오고 있다.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수입이 되는 대형아파트는 고사하고 최근 소형 아파트 거래마저 줄어들고 있다”며 “연말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이 완료되면 거래는 더 한산해질텐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구 효천2지구 '제일풍경채' 700가구 분양

제일건설 23일부터 농성동에 건본주택



‘살기 좋은 아파트’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제일건설이 23일부터 남구 효천2지구에 ‘제일풍경채 에듀파크’를 분양한다. (조감도)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72㎡(28·29평) 58가구, 84㎡(33평) 642가구 등 총 700가구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효천2지구는 지난 6월 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B2, B3블록을 성공리에 분양한 택지지구다. 동쪽 진월지구와 서쪽 효천1지구 사이에 위치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풍성한 녹지와 노인건강타운 등을 고루 갖춘 자연·문화·레저형 택지지구다.

특히 ‘광주의 8화곡’으로 불리는 남구 봉선동을 핵으로 두고 있

다. 또 쇼핑시설·학원·병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진월지구와 생활권이다.

교통여건 또한 우수하다. 국도 1호선, 제2순환도로가 연결돼 있고, 광주 도심은 물론 전남권(화순, 목포)방면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나주혁신도시와의 접근성이 우수해 혁신도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하철 2호선(예정)과 효천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라 미래투자자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효천2지구는 봉선동 명문학교와 진월지구의 생활 인프라, 나주혁신도시를 배후에 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광주 건설업체라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마감재와 설계, 단지 내 전용도서관 등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텔하우스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 상록회관 옆에 마련됐으며, 오는 23일 문을 연다. 문의 1577-1810. /*박정욱기자 jwpark@

하이브리드차 출시 16년만에 글로벌 판매 年100만대 돌파

올해 하이브리드차 시장이 100만대를 돌파해 시장 성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일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공동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차 시장 성장 배경 및 전망’ 보고서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하이브리드차가 올해 첫 출시 16년 만에 연간 100만대 판매, 누적 판매 500만대를 기록하며 변곡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하이브리드차 업체 선두업체인 도요타자동차는 올해 1~10월

도요타·렉서스 하이브리드 모델의 전 세계 판매가 102만대를 기록했으며 프리우스가 출시된 1997년부터 올 10월까지 누적 판매는 460만대라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연 8만대 수준이던 픽시발리 시장은 1987년 100만대 판매 이후 성장했고 한국의 스마트포드 보급도 2010년 9월 100만대를 넘어 5개월 만에 500만대를 돌파했다”며 “하이브리드차 시장도 100만대 규모를 형성하면서 일반 소비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잘 어울리나요” (주)광주신세계 1층 시즌이벤트홀에서는 오는 22일까지 모피대전을 개최한다. 한 여성 고객이 윤진모피에서 50~70% 할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모피를 입어 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관리·점검 강화...車연비 못 속인다

내년부터 오차 허용범위 줄이고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자동차 연비의 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결과도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양산 차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연비 오류 파동이 일면서 제작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양산 차의 연비를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러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연비의 공인력을 높이도록 제작사의 연비 측정용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연비 측정은 제작사에 맡기지만 방식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제작사가 시행하는 주행저항시험과 차대동력계 시험 등 연비 측정을 검증하는 게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행저항시험을 할 때 도로 상태와 차중량, 타이어 마모 정도 등을 유리하게 설정해 연비를 높이는 행위가 통제된다.

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km가

지 가속한 뒤 무동력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미국처럼 자체 측정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의 10~15%를 판매 전에 연비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연비 오차 허용 범위를 기존 -5%에서 -3%로 축소하고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를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린다.

양산 차의 연비를 사후에 측정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 페스티벌'

내일 가전로봇센터서...콘서트·창업 상담

광주테크노파크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테크노파크 가전로봇센터에서 '2012 청년창업 페스티벌'을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여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우수창업자 시상과 우수창업보육인 표창, 성공한 선배 창업자와 함께 하는 창업콘서트, 창업지원 상담, 중국바이어 수출 상담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 창업 불 조성을 위해 개그맨 이

봉원씨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어 창업실패 경험담을 듣는다.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은 “지역 내 성공한 창업기업들 많이 육성해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10년부터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149명의 예비창업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호남석유화학, 케이피케미칼 합병

호남석유화학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그룹의 화학계열사인 케이피케미칼과의 합병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합병 비율은 1대 0.05이며, 합병 기일은 다음달 27일로 확정됐다.

이번 합병으로 호남석유화학은 주요 제품군에서 아시아 1~2위, 글로벌 10위권의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

자산규모 확대, 사업다각화, 신규사업의 통합 운영 등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허수영 호남석유화학 사장은 “2018년 매출 40조원과 아시아 선도 기업이라는 목표 달성의 큰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90.18 (+12.08)
코스닥지수	496.66 (+3.52)
금리 (국고채 3년)	2.80% (+0.01)
원·달러 환율	1082.20원 (-4.8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형식: 220V, 60Hz 크기: 500 x 530 x 870 중량: 약 65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최대 20kg 연료 저장량: 60W 정격소비전력: 약 83㎡(구 약 20~30평형)	형식: 단독형(스토브식)난로 전원: 220V, 60Hz 크기: 550 x 750 x 1050 중량: 약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대 30kg 연료 저장량: 70W 정격소비전력: 약 149㎡(구 약 40~50평형)

연료비 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사무실/영업장/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기준 사용량	금액(환산)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단, 전기온풍기는 0~100kw 사용량을 전후로 금액이 달라지며, 사용량이 높을수록 최고 10배까지 증가 30일 사용시 726kwh(약 17일 약 10.99원)

펠릿 연료란? 목재를 연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석유 대비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문의: 070-4111-7823 / 010-9468-3282

대리점·취급점·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청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침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할 해본 사람들은 병문 소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너무 뿌리위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정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청사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